

韓國近代小說의 史的研究

—그 形成期를 中心으로—

丘 仁 煥

(국어교육과)

I. 序

한국문학은 쉬지 않고 변모하면서 새로운 樣相과 그 指向性을 보여준다. 그것은 면면히 계승되어 오면서 形成된 韓國文學의 通時的인 軸과 새로운 發生的인 意欲의 발현인 共時的인 文學現象의 상호 응진에 의해 변모되어 간다. 여기에 外在的인 文學的 受容이 변모의 力動力의 일부를 담당한다. 그리고 보면, 한국문학은 통시적인 즉인 文學的 傳統과 공시적인 현상인 文學的 意欲과 外在的인 受容의 역학적 작용에 의해 形成되고 변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力學的인 상호관계가 平衡을 이룰 때는 文學의 새로운 변모보다는 완숙을 지향하지만, 그 관계가 不均衡 상태가 되면, 완숙에의 지향보다는 새로운 변모를 시도하여 轉形의 양상을 띤다. 鄉歌나 歌辭, 開化期小說 등의 장르 形成과 그 文學樣相을 보면, 그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三代目」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鄉歌는 新羅人의 生活意識과 情緒의 4句體의 수용에 의해 形成되어 8·10句體로 완숙을 指向하다가 高麗에 접어들어 社會的 變動과 景幾體歌와 高麗俗謠의 새로운 장르의 출현으로 「普賢十願歌」를 마지막으로 쇠퇴하고 말지 않았던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은 文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변모·성장해온 韓國文學은 그것에 受容된 歷史的 現實과는 달리 實存한다. 그것은 文學이 歷史나 社會的 現實의 模寫의 수용이 아니라 文學的인 技法에 의한 새로운 秩序의 創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文學이 歷史나 社會와 等距離의 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¹⁾ 그것은 文學은 歷史나 社會를 긴밀성에 의해 露出·展示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技法에 수용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문학세계의 창조인 데서 기인한다. 그것은 문학이 歷史나 社會의 예측이 아니요, 美意識에 의한 새로운 指向性을 形象化하여, 文學은 歷史나 社會와 등거리에 있는 文學世界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文學과 社會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歷史나 社會는 文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러한 한국문학의 解釋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더구나, 文學史의 경우는 그 敘述方

(1) 歷史나 社會가 文學에 受容되는 媒介는 技法이다. 이 技法에 의한 文學의 藝術性을 輕視한 文學에 나타난 歷史와 社會의 論議는 文學世界를 歷史나 社會의 樣相의 記錄이나 그 意識의 발현이라고 보는 견해다.

法에 따라 여러 樣相의 文學史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떻게 한국문학을 해석하고 서술하느냐에 따라 한국문학의 實像이 달리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上梓된 文學史에서 한국문학의 실상과 그 繼時的 意味가 달리 보이는 것도 문학의 解釋方法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現狀이다.

한국문학사는 한국문학의 작품, 작가 등의 共時的인 의미의 定立을, 通時的 究明에 의한 繼時的 意味의 서술이다. 거기에는 장르의 變異에 따른 한국문학의 변모과정과 거기에 면면히 계승되어 있는 한국인의 意識과 生活感情의 文學의 受容에 의한 한국문학의 總體像이 제시적으로 서술되어진다.

사실 그 起點이 문제되고 있기는 하나⁽²⁾ 한국의 近代文學도 이제는 同時的인 의미를 넘어 繼時的인 의미의 추구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인의 近代意識과 生活感情을 근대 문학적인 技法으로 形象化한 근대문학도 現代文學으로 변모하면서 그 文學性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戰後文學에서 보듯 현대문학은 근대문학의 美學으로는 밝힐 수 없는, 近代文學과는 異質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開化期 이후의 文學을 現代文學이라고 指稱하던 타성에서 脫皮해야 함을 의미한다. 근래 한국의 近代文學이란 用語를 자주 쓰고 있는 것도 그 當爲性을 立證하는 사실이다.

文學史에서 그 方法의 차이나 資料의 未完으로 여러 樣相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³⁾ 서구문예를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그 文藝思潮에 의해 한국문학을 照明한 白鐵의 「新文學思潮史」나 文壇史의 方法으로 서술한 趙演鉉의 「現代韓國文學史」, 比較文學的 方法에 의한 金東旭의 「國文學史」, 장르史의 方法에 의한 張德順의 「韓國文學史」, 意識史의 方法에 의한 金允植, 김현의 「韓國文學史」 등은 전자의 樣相이요, 「내가 처음 쓴 것들」을 보지 못한 데서 생기는 春園의 處女作에 대한 시비, 崔素月の 「빨지엄의 勇士」(1915), 金億의 「夜半」(1915), 「밭과 나」(1915), 春園의 敘事詩 「極熊行」(1917)을 안 본 「불노리」에 대한 論議, 春園과 같이 近代小說의 形成에 기여한 玄相允이나, 韓龍雲, 金億 등 詩人들의 小說을 제외한 近代小說 形成의 논의는 후자의 樣相이다. 또한 「標本室의 靑개구리」를 自然主義로 보려는 견해나, 대중소설인 「濁流」를 문제작으로 내세우는 입장, 春園의 모든 작품을 民族主義 啓蒙主義 일변으로 재단하려는 경향과 같이 작품이나 작가를 잘못 評價하거나 재단하여 왜곡되게 敘述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같이 文學史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서술된 文學의 總體像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작품이 지닌 文學的 意味를 바르게

(2) 近代文學 起點의 論議의 焦點은 近代性的인 究明과 그 意識의 技法에 의한 文學的 受容이라는 意識과 技法의 양면에서 考察되어야 한다. 近代文學的인 技法에 受容되지 않은 의식은 文學이 思想性과 藝術性의 二元性에 의해 形成됨을 경시한 입장이다.

(3) 文學史의 서술은 內在的인 文學의 現象을 서술의 焦點으로 하고 外在的인 것과의 照明을 하는 方法과 意識이나 社會와 같은 外在的인 기층에 의해 作品을 抽出·照明하는 方法의 두가지가 있다.

평가하지 않은 文學史는 한국문학의 실상을 그릇되게 定立할 위험성이 있다.

文學史에서는, 作品論이 끝난 데서 作家論이 시작되고 작가론이 끝난 뒤에 장르나 時代의 공시적 의미를 탐색하고 장르의 변이에 따른 通時的 考察이 그 主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빠짐없는 資料의 발굴과 그것의 올바른 解釋과 評價에서 文學史는 시작된다. 따라서, 文學史에서 作品이나 作家의 누락이나, 恣意的인 排除가 있을 때는 그 作家의 總體像에 의한 作家論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作家論이나 文學史的인 어프로치가 기축이 되어 있는 文學史도 한국문학의 總體像의 서술이라고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定立에 의한 文學史의 체계화가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近代小說의 形成과 그 文學的인 樣相을 史的으로 정립해 보는 일이다.

이런 文學史의 정립은 文藝思潮나 作品 해석에 의한 共時的인 접근에 치중한 것을 비롯하여, 意識史의 證言的 方法에 의한 서술, 갈등 구조에 의한 內在的인 文學的인 樣相을 추구한 力著⁽⁴⁾들이 있으나, 文學의 二元性에 의한 共時的인 究明을 通時的으로 체계화하는데는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近代性과 近代小說의 규정에도 문제가 있으나 近代小說 기점 문제와 관련된 開化期小說의 歸屬問題, 先行되어 나타나는 文學意識과 실제 작품과의 相關性, 外國의 그것의 受容문제, 장르의 변이와 近代小說의 形成문제,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近代小說의 形成過程과 그 樣相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 小考에서 20세기 초두부터 10年代의 小說을 中心으로 近代小說의 形成과 그 樣相을 考究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Ⅱ. 近代小說 形成의 背景

한국의 近代小說은 리얼리즘을 기저로 하는 文學이다. 말하자면 近代意識이 리얼리즘으로 受容된 문학이다. 自然主義는 리얼리즘을 근거로 派生한 유파이기는 하나 한국의 근대 소설에는 自然主義의 발상은 시도되었어도 자연주의가 그 主流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리얼리즘은 近代性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近代의 時代性과 社會性을 의식한 유파이며, 近代的인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開化期小說 이후의 近代小說은 서구의 근대소설의 美學

(4) 다음과 같은 저서에서 近代小說이나 近代文學內的 이런 樣相을 볼 수 있다.

白鐵, 新文學思潮史, 民衆書館 (1949)

趙演鉉, 現代韓國文學史, 人間社 (1965)

金允植, 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0)

張德順, 韓國文學史, 同和文化社 (1977)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成文閣 (1978)

李在銑, 韓國現代小說史, 弘盛社 (1979)

의 金科玉條인 리얼리즘을 變容하여 文學意識의 변화에 상응하면서 성장해 온다.

1. 近代小說 形成의 背景

다른 장르와도 같이 文學도 부단히 변해 가는 時代의 변화나 思想을 수용하면서 문학 자체의 樣式이나 技法의 변모를 가져온다. 근대소설도 朝鮮小說이나 開化期小說을 이어 근대 소설적인 技法에 時代狀況이나 사상을 受容하면서 형성된 소설의 장르다.

이 近代小說이 형성하게 된 요인은 여러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近代文學의 移植論의 주장으로 한국문학을 古典文學과 現代文學의 二元으로 단정, 傳統斷絶의 입장을 내세운 林和가 ① 禁壓下の 實學 ② 自主精神과 開化思想 ③ 新文學의 移植과 發展을 들어, 近代文學 발생을 정진적 측면에서 照明한 것(林和 pp.18~32)을 비롯하여, ① 新教育의 實施 ② 新生活運動 ③ 國民運動의 展開 ④ 國語普及과 基督教 ⑤ 近代的 新聞의 刊行 등 文學의 外的 측면을 밝힌 白鐵의 所論(白鐵 pp.218~224) 등 적지 않게 논의되고 있다.

미완이 되고 단 「韓國現代詩文學史」의 ‘近代意識의 黎明’을 論究하면서 趙芝薰은

한국의 近代運動은 대략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6세기 초부터 西歐文明의 流入과 17세기 劈頭에 시작된 西洋의 認識을 거쳐 일어난 實學運動이 그 하나요, 둘째, 17세기 초에서부터 그 末葉까지 일어난 洪景來亂, 三政騷擾, 東學亂으로 표현된 人民의 반항 운동이 그 다른 하나이며, 셋째,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甲申政變, 甲午更張, 己未運動이 또 다른 하나이다.

첫째 단계는 外部的인 자극으로 일어난 것으로 주로 學術運動이었고, 둘째 단계는 內部的인 興件이 爆發시킨 民術抗爭이었으며, 셋째 단계는 內外的 時勢에 順應한 自覺의이고, 積極인 思想運動 내지는 政治運動이었던 것이다. 이 세 가지 운동의 擡頭를 刺戟한 것은 倭胡兩難과 勢道政治와 丙寅辛未의 洋擾였다. 그리고 이들 3단계의 近代化 運動의 理念 內容의 中核은 통틀어서 民族意識과 社會意識이 半半의 比重으로 이루어졌었다.

라고 民族과 社會意識의 측면에서 近代意識을 추구하고 있다(趙芝薰 pp.221~222). 이것은 近代文學의 출발을 實學에서부터 보려는 見解와 相關性을 갖는다. 또한 한국의 근대의 詩文學을 체계있게 정리한 「韓國現代詩文學史」에서 鄭漢模는 한국의 近代를 ① 18세기 近代化 運動의 先覺 ② 西洋의 그림자 ③ 衛正斥邪와 民族意識, ④ 植民地化 過程에서의 近代意識의 發露를 詳論하면서 近代詩形成의 背景을

1. 近代新聞의 刊行
2. 基督教의 上陸과 그 影響
3. 新教育에 대한 自覺과 그 意欲
4. 學會와 雜誌의 簇出

을 들어 말하고 있다(鄭漢模, pp.29~30). 이는 近代意識의 形成에 대해 가장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이제까지의 피상적인 타성을 탈피한 論議이다. 더구나 근대문학의 직접적인 배경을 정리한 것은 사실 자체를 透視하여 그것을 다시 類型化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文學形成의 外的 要件의 究明에 注重하여 文學의 歷史의 證言說에 집착한 감이 있으나, 近代文學 形成의 背景을 明瞭하게 제시한데 큰 의의가 있다. 張德順은 新小說 形成의 요인으로

첫째. 國語運動의 대두와 發表, 民間新聞의 簇出

둘째. 新聞과 出版企業의 商業主義와 讀者層의 擴大

셋째. 新聞의 新小說의 革新思想, 日本 明治文學과 晚淸文學의 影響, 그리고 職業文士 형성

등 세 가지를 들어 外來의인 것의 受容의 면까지 擴大한 견해(張德順, p.363)이나, 文學의 內在的인 變化에 의한 轉形을 고찰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近代小說의 形成背景은 이렇게 여러 側面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近代性의 究明과 그것이 어떻게 근대소설의 樣式과 技法에 수용되어 한국의 近代小說을 形成하였는가의 문제로 集約된다. 그것은 近代性의 究明으로 근대의식의 實像을 밝히고 근대문학적인 技法에 수용된 近代意識을 추구하는 데서 한국의 近代小說의 形成을 究明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近代小說의인 技法에 의해 形象化되지 않은 近代意識은 한갓 역사나 사회사적인 觀點사에 지나지 않는다. 實學에서부터 근대문학이 출발했다는 견해의 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實學思想을 한국의 근대 의식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意識의 지속성과 그것을 近代文學的인 技法으로 形象化한 作品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계승성이 있어야 그 論據가 首肯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外國文學의 受容에 의한 그 영향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것은 일본이나 만청의 近代小說 形成의 영향과 서구 문예의식의 영향이 近代小說 내지 近代文學 意識을 각각 하고, 그 形成에 변형적인 영향을 준 것을 추적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近代小說 形成의 요인을 밝혀 近代小說 形成의 外的·內的인 관련성을 考究해 본다.

2. 近代小說 形成의 要因

한국의 近代小說 形成의 요인은 甲申政變, 甲午更張, 東學亂 등 사회적 변동과 새로운 文化運動이 文學에 透影되어 나타나는 自生的要因과 이러한 내적 변화에 자극제가 되고 變化를 강요하여 變形的으로 受容되어 일어나는 他生的要因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요인의 相衝과 吸引作用에 의해 近代小說의 形成을 보게 된다.

(1) 自生的 要因

근대소설이 形成되는 自生的 要因은 ① 社會的 變化 ② 新聞雜誌의 刊行과 出版社의 설립 ③ 국어에 대한 自覺 ④ 文學意識의 새로운 認識 등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社會的 變化: 開港 이후에 복잡하게 변하는 정치적 樣相은 고전문학의 傳統的인 意識을

따르면서 吟風弄月하는 觀照의 문학에 안주할 수 없게 한다. 洋夷가 밀려 오는 外來勢力과 국내의 稅政으로 韓末은 새로운 改革思想이 진통하게 된다. 官紀紊亂과 經濟的 破綻에 항거하여 東學亂이 일어나고, 淸日戰爭에서 승리한 일본의 庇護 아래 甲午更張(1894)이 일어나 잠자던 朝鮮의 사회에 새로운 각성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 傳統的인 舊穀을 벗고 자주독립, 민주사상, 신교육사상, 자유연애, 미신타파 등 새로운 改革思想이 대두한다. 208項에 달하는 改革의 公布는 그대로 실시되지는 못하였어도 開化思想은 文化的 改革과 서양문화의 수입을 가져 오게 되어 近代意識의 각성을 보게 된다. 더구나 淸日戰爭의 10년 뒤에 일어난 露日戰爭은 더욱 자주 정신을 자각케 하고 自我를 각성케 한다. 이것은 社會的 變化에 따른 의식의 變化요, 새로 近代意識의 社會的 擴大를 의미한다. 文學에선 이러한 意識을 수용하려는 새로운 文學의 장르가 형성하게 된다.

② 新聞雜誌의 刊行과 出版社의 설립: 社會的 變化에서 오는 새로운 意識을 새로운 文學樣式으로 促進한 것은 新聞, 雜誌, 學會誌의 刊行과 出版社가 대두된 일이다. 文學은 創作되는 것으로 그 가치를 지니지만, 그것이 讀者에 전달됨으로써 비로서 文學의 機能을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文學과 讀者의 媒介 구실을 하는 刊行物은 새로운 意識을 고취하고 作品을 發表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여 文學 傳達者로서 기능을 다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新聞의 社說과 論說, 雜誌, 學會誌에 실린 자각을 촉진하는 論說은 近代意識을 신장하고 그것을 文學에 수용케 하는 가장 중요한 發信者의 구실을 한다. 張德秀가 「學之光 第三號 發刊에 臨하야」에서

諸君이여, 들로 치면 소리가 나고 空氣도 振動하면 音樂을 奏하느니라 況且 心靈을 가진 吾人이여! 古今을 通觀하고 天地를 덮는 豊富한 想像力을 가진 우리가 萬物을 融解하야 隨意로 使用하는 偉大한 知力을 가진 우리가 깊겨 위하는 者와 갖치 깊겨 위하며 슬피하는 者와 갖치 슬피하는 淸高한 感情을 가진 우리가 無限大의 活動을 向進하는 強烈한 意志를 가진 우리가 아주 瞑目緘口하고 말을까? 不然하다. 決斷코 不然하다. 太陽이 存在하면 그 光彩가 永久히 燦燦호지르다. 身體는 耳目手足을 要求하고 心靈은 自由활동과 최고 表現을 要求하느니라 萬一 心靈의 自己表現이 無하얏스면 孔子도 업소 釋迦도 업고 基督도 업스며 愚者도 업고 賢者도 업서 天地가 暗黑渾沌 호지르다. 天地의 活動은 自己表現의 結果이니 煉然한 文明의 아름다움이 亦是 自己表現의 結果가 아닌가? ……吾人人類는 爽快한 言語와 美妙한 文字를 有하며 趣味 깊은 傳說을 有하니 한번 생각하고 한번 눈을 뜰새에 青年 諸君이여 吾人은 讚美함을 마지 못호지라. 自然의 美와 心中所思를 엇지 表現치 아니호리오? ……

라고 植民地下에서의 狀況을 感得할 수 있게 說破하면서,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自己表現에 의해 文明이 形成됨을 강조 하면서 自然의 美와 心中所思를 表現할 것을 강조하고 나서

또한 우리의 心靈은 恒常 잠자며 안지가 되기 쉬워 光明을 拜하기 難호도다. 善은 何며 惡은 何며 自己 統一 人格形成의 原理가 何호? 青年 諸君이여 止於至善할 者 果然 幾人호? 止而後에 存定이니

萬一에 止息을 잊지 못하면 漠漠한 曠野에 迷한 小羊의 一群됨을 免치 못할지로다. 눈이 오고 바람이 甚하여 天地가 晦冥하되 牧人을 일코 길을 이룬 曠野의 一群小羊을 愛兄弟여 諸君은 보았나뇨?

此紙는 一方으로 同情과 愛의 光이 되며 一方으로는 眞實로 學이 되야 外 宇宙를 觀解하며 內로 自己統一과 自我確立의 光明이 되기를 願하는 바이로다.

라고, 「學之光」이 同情愛와 學의 光이 되어 宇宙를 觀解하고 自己統一과 自我確立의 光明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學之光」3號, 1914)

신문이나 雜誌의 이런 近代意識의 전달과 自覺을 추구한 것은 잠자던 民衆에게 새로운 光明을 비쳐 주었다. 新聞의 호시는 「漢城旬報」(1853)이지만 최초의 격일 신문이며 순한글의 「독립신문」(1896)은 그 제1호에서 不偏不黨하고 상하귀천없이 조선인을 위해 言論을 펼 것과 상하귀천없이 누구나 쉽게 알게 하기 위해 한글로 씀을 밝히고 있듯이 新聞이 劃期的인 전환기를 만들어 近代小說이 形成될 수 있는 波長을 일으키고 그 發表 무대를 제공한다.

또한, 각 지방이나 同好의 欸목과 研究를 위해 設立된 學會의 기관지인 大韓自強會日報(1906), 太極學報(1907), 朝鮮報(1907), 獎學會月報(1908), 西北學會月報(1908), 畿湖學月報(1909), 嶠南教育報(1909), 大韓獎學報(1909), 大韓興學報(1909), 湖南學報(1909) 등과 崔南善에 의한 少年(1908), 青春(1914), 日本留學生의 기관지인 學之光(1914) 등 잡지의 발간은 近代小說이 形成하는데 촉진적 구실을 한다. 春園의 「어린 犧牲」(少年, 1910)을 비롯하여 玄相允의 「恨의 一生」(青春, 1914), 「清流壁」(學之光, 1916) 등 近代小說 形成期의 작품이 거의 雜誌에 발표되고 있다. 新聞, 雜誌의 文體도 상당히 注目되어져야 한다.

또한 出版社가 대두되어 小說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다하게 되어, 독자층의 層面을 擴大하게 된다. 이래서 小說을 중심한 文學이 일부계층의 專有物에서 大衆에게로 스며들게 하며 文學과 讀者의 새로운 紐帶를 맺게 한다.

③ 國語에 대한 自覺: 국어에 대한 새로운 自覺과 研究는 近代小說 형성의 중요한 要因이다. 兪吉濬의 「西遊見聞」(1895)은 西洋文物의 수용이라는 현실적인 면에 못지 않게 國漢文混用의 文體를 시도하여 漢文의 豫속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변모를 가져온다. 이것은 「獨立新聞」 제1호의 「논설」에

우리 新聞이 韓文을 마니 쓰고 다만 國문으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이 다 보게 흠이라, 쪼 國문을 이리케 귀걸을 쪼여 쓴즉 아모라도 이 新聞 보기가 쉽고 新聞 속에 잇는 말을 자세히 알아 보게 흠이라 各國에서는 人들이 남너 무른하고 본국 國문을 묻져 비와 능통호 후에야 外國 글을 비오논 법인디 조선시는 조선 國문은 마니 비오드러도 韓文만 공부호는 外國에 國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이라. 조선 國문하고 韓文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國문이 韓文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 하니 첫지는 비호기가 쉬호니 豆흔 글이요 들지는 이 글이 조선글이나 조선 人민들이 알아서 비사을 韓文 터신 國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두 보고 알아 보기가 쉬호 터이라.

라고 國문으로 써야 한다는 국어에 대한 自覺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봉운의 「국문정리」(1897), 池錫永의 「新訂國文」(1905), 權靖善의 「音經」(1908), 俞吉濬의 「大韓文典」(1908), 周時經의 「朝鮮文典音學」(1908) 등 文法 연구서의 簇出은 국어에 대한 自覺의 직접적 실천이요, 民族意識의 자각이 나타난 현상이다.

④ 文學意識의 새로운 認識: 餘技說에 의해 學問이나 政治에 참여한 여가나 流配나 가셔야 붓을 잡는 조선의 文士와는 달리, 필연적인 欲求에 의한 문학의식의 伸張은 近代小說 形成의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 文學을 個人의 耽美的 趣味로 여겨오던 타성에서 벗어나 문학의 장르나 文學의 現在性과 指向性에 대한 자각은 문학의 보다 새로운 變革을 일으킬 수 있는 內的인 요인이 된다. 「花의 血」의 末尾에,

소설이라 하는 것은 매양 빈공착영(憑空捉影)으로 인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警醒)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중, 그와 방불한 사람과 방불한 사실이 있고 보면, 에독하시는 열위(列位) 부인·신사의 진진한 재미가 일층 더 생길 것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실을 경계하는 좋은 영향도 없지 아니할지라, 고로 본 기자는 이 소설을 기록함에 스스로 그 재미와 그 영향이 있음을 바라고 또 바라노라.

라고, 小說의 虛構性과 小說의 영향을 말하고 있듯이 新小說 作家의 새로운 文學意識을 볼 수 있다. 또 春園의 文學의 價値(大韓興學報, 1910), 「文學이란 何오」(每日申報, 1916), 崔斗案의 「文學의 意義에 關하여」(學之光, 1914), 安廓의 「朝鮮의 文學」(學之光, 1915), 白一生의 「文壇의 革命兒야」(學之光, 1917) 등의 文學論의 개진이나 새로운 文學的 自覺의 발로는 近代小說 形成의 動力的 구실을 다한다.

이러한 文學意識에 의해 새로운 양식의 作品을 쓰는 직업적인 文士가 태두하게 된 것은 近代小說을 形成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李海朝, 崔瓚植과 같은 新小說 作家는 물론이요 春園 小星과 같은 作家들이 전문적으로 作品을 써, 近代小說의 構造와 文體를 형성해 간다.

이와 같이 社會的 變化와 그 意識의 受容, 新聞 雜誌의 發刊과 出版社의 設立, 국어에 대한 自覺, 文學에 대한 새로운 認識 등의 自生的인 要因은 外國文學의 영향이 주로 作用하는 他生的인 要因과 복합하여 近代小說의 形成을 촉진한다.

(2) 他生的 要因

近代小說 形成의 他生的인 要因이란 주로 外國文學의 영향을 의미한다. 그것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본의 近代文學이나 中國文學, 또는 일본에 번역 紹介된 서구문학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他生的인 요인은 대체로 文學論의 영향, 翻譯小說, 翻案小說의 樣相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近代小說 形成의 성서라고 일컬어지는 坪內逍遙의 「小說神髓」의 情의 文學論에 영향을 받은 春園의 「文學의 價値」와 「文學이란 何오」로 集約되는 文學論, 梁啓超와 메슈 아놀드 등 英文學의 영향을 받은 崔斗善의 「文學의 意義에 對하여」 등은 外國의 文學論의

受容에 의한 文學意識의 正립 현상이다.

또한, 톨스토이 「사람의 勝戰」(少年 8호 1909), 「어른과 아해」(少年 12호 1909), 빅톨·유고의 「ABC契」(少年 19호 1910), 안드레프의 「外國人」(學之光, 1915) 등 65篇⁽⁵⁾이 번역되어 (일역에서의 중역이 가능이 많지만) 내용은 물론 小說의 構造에서 새로운 近代小說을 대하게 된다.

또한 翻案小說이나 傳記가 쏟아져 나와 近代小說 形成의 촉매구실을 한다. 베르느쥘르(Verne Jules)의 「鐵世界」를 李海朝가 번안한 「鐵世界」(1908), 未廣鐵脹의 政治小說 「雪中梅」를 具然學이 번안한 「雪中梅」(1908), 尾崎紅葉의 「金色夜叉」를 번안하여 人氣를 모은 趙重桓의 「長恨夢」 등 번안소설도 외국 문학이 미치는 영향권의 擴大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傳記의 作品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근세 제일여중영웅이라 하여 매일신문이 梁啓超의 것을 번역 연재한 「라라婦人傳」(1907), 실러의 「빌헬름」을 중국의 鄭哲貫이 小說體로 번역한 것을 朴殷植이 번역한 「瑞西建國誌」(1907), 애틸라인스 原作을 李彩雨가 번안한 「愛國精神」 등 많은 傳記의 번안이 小說의 構造와 文體의 形成에 큰 영향을 주면서 近代小說 形成의 促進劑가 된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自生的·他生的 要因에 의해 近代小說이 形成하게 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 ① 詩, 小說 등 장르에 대한 인식
- ② 小說의 虛構性과 教化性 등 기능에 대한 인식
- ③ 詩의 抒情性과 小說의 技法에 대한 자각과 실험
- ④ 국어에 대한 자각에 의한 文學의 전달성의 擴大
- ⑤ 번역, 번안소설 등에 의한 國語, 文體의 變革
- ⑥ 新聞, 雜誌, 出版에 의한 小說과 讀者의 紐帶 형성

Ⅲ. 文學意識과 小說의 現場

近代小說의 形成은 文學意識이 先行되고 창작이 技法과 文體의 變革을 이루면서 그 뒤를 따른다. 그것은 文學意識은 앞서지만 生活意識이나 技法이 바로 같이 못하기 때문이다. 新小說作家에서 그 변모가 시작된 近代文學의 文學意識은 外國小說의 變形的 受容의 촉매를 받으며 近代小說의 形成을 가져 오게 된다.

우린 文學意識의 변모와 外國小說의 受容樣相, 그리고 近代小說의 形成과정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5) cf. 拙稿, 「李光洙小說에 受容된 톨스토이」 국어교육(32), 1978.

1. 文學意識

近代小說이 形成되면서 文學意識은 小說論이나 文學論으로 나타난다. 그 전초적인 것은 新小說作家에서 볼 수 있으나 六堂과 春園, 玄相允 등에서 近代의 文學意識의 자각에 의한 文學論을 볼 수 있다.

新小說作家의 小說觀⁽⁶⁾은 朝鮮小說觀과는 다른 近代小說의인 자각이 엿보이나 그것이 단편적이며, 朝鮮小說의 그것을 벗지 못한 견해가 많다. 新小說의 序文, 跋文 또는 後記에서 볼 수 있는 그 文學意識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寫實性: “小說은 人生의 길가에 따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발작의 말대로 이 사실성은 近代小說의 출발이다. 李相協의 「再逢春」의 ‘編頭短言’에서 「再逢春」은 “産業社會의 形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 寫實性을 말한 것이며, 李海朝도 「花의 血」의 ‘序言’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성을 말하고 있다.

이제 또 그와 같은 현금 사람의 실적 「화외 혈」(花의 血)이라 하는 소설을 새로 저술할 새 허언광설은 한구절도 기록지 아니하고 경녕히 있는 일동일정을 일호착없이 편집하노니 기자의 동주가 민첩치 못함으로 문장의 광채는 황홀치 못할지언정 사실은 적확하여 눈으로 그 사광을 보고 귀로 그 사정을 듣는 듯하여 선악간 죽히 밝은 거울이 될만 할가 하노라.

‘경녕히 있는 일동일정을 일호착 없이 편집하노니’에서는 프로벨의 一物一語說을 연상케 한다.

또한 「花의 血」의 현금 사람의 실적이라고 말한 것은 小說의 寫實性을 자각한 文學意識이다.

② 虛構性: 近代小說의 가장 중요한 特性의 하나가 虛構性인데, 「花의 血」의 末尾에서

小說이라 하는 것은 대양 憑空捉影으로 인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중, 그와 방불한 사람과 방불한 사실이 있고 보면, 애독하시는 열위부인 신사의 진정환 재미가 일층 더 생길 것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실이 경계하는 좋은 영향도 없지 아니 할지라.

(6) 新小說系列의 序文이나 跋文에 李朝小說의 그것을 넘지 못할 견해도 많으나 近代小說의인 文學觀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요한 序文과 跋文은 다음과 같다.

朴殷植 譯述, 瑞士建國誌, 大韓每日新聞, 1907. 7. 序文.

李人植, 鬼의 聲, 中央書院, 1907. 10. 3. 序.

玄公廉, 經國美談, 玄公廉, 1908. 8. 9. 책머리.

李海朝, 花의 血, 東洋書院, 1911. 10. 10. 서언 末尾.

李相協, 再逢春, 東洋書院, 1912. 8. 15 編頭短言.

李海朝, 彈琴臺, 新舊書林, 1912. 12. 10. 책끝.

紹 雲, 碧芙蓉, 雁東書林, 1912. 12. 12. 끝.

小說叢書, 東洋書院, 1913. 集大成이 辯.

安國善, 共進會, 修文書館, 1915. 8. 25. 서문, 贈讀者文.

고 小說의 虛構性과 教化性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李海朝의 憑空捉影은 近代小說의 새로운 작성이기는 하나, 新小說은 朝鮮小說을 그대로 계승하여 구대의연하고 春園이나 小星에 이르러서야 그 양상을 띠우게 된다.

③ 小說의 敎訓性: 新小說作家의 文學意識은 世道の 鑑戒를 비롯하여 教化性 곧 文學의 敎示的 機能을 주로 하고 있다. 文學의 教化性을 강조하는 것은 朝鮮小說은 물론 모든 시대의 文學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다. 朝鮮小說이 勸善懲惡 一邊倒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新小說도 결국 薙髮안드로 끝나며 권선징악으로 끝나고 있는 것도 教化性 위주의 文學意識의 所産이다. 教化성을 강조하는 예를 들어 보자.

소설이라 하는 것은 매양 빈공착영으로 인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중……열위부인·신사의 진진한 재미가 일층 더 생길 것이요.

——「花의 血」의 책끝

이제 세상 탕자 음부로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죽히 부끄러워 줄을 죽을만 한지라. 어찌 인세 풍화에 대관계가 아니라 하리오. 創善懲惡의 寶箴을 짓고자 하노라.

——「碧芙蓉」의 책끝

사람의 마음이 예와 같지 못하여 욕심으로 화복을 분별치 못하는 자 있기로 이를 저작하여 경성케 하노라.

——「금남이산」의 책끝

安國善의 「共進會」의 ‘贈讀者에게’에서 小說의 共感領域과 敎訓的 機能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新小說作家의 文學意識은 단편적이고 또 그것이 文學意識으로 그치고 作品化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新小說을 최초로 集大成한 東洋書院의 「小說叢書」(全40卷)의 ‘集大成的 辯’은 小說이 무엇인가와 그 가능성을 간결하게 말해 近代小說論에 접근하고 있다.

小說은 人生의 秘義를 透暎하며 社會의 面目을 寫照하여 우리로 하여금 善과 惡, 正과 邪, 精과 粗를 分辨取捨케 하며 文藝의 으로 感情을 引導하여 美의 性態, 眞의 理想, 詩의 志趣를 涵養하는 것이라 어찌 些減한 神異奇妙로 一時의 寥寂을 破하며 若干의 談資笑柄으로 暫時的 逍遙을 作함에 그칠 것이리오. 只今 朝鮮文藝는 아직 完全한 地盤을 築기 前 過渡時期에 있는 것이라 不覺令人催嘔할 許多雜著가 一時에 擡頭함에 思想界는 因하여 紊亂을 極하고 風化는 因하여 衰頹를 極하는도다. 本院은 이를 大覺한지라 大方諸家를 延聘하여 編輯部를 組織하고 이에 이 弊端을 救하기로 主旨에 適合한 左設諸書를 選拔提供하오니 諸彦이여 만드시 一讀의 勞를 惜치 말라.

④ 近代的 文學意識: 近代文學의인 文學意識은 李光洙에서부터 비롯된다. 물론 「少年」과 「青春」에 崔南善의 短評이 없지 않으나, 李光洙의 「文學의 價値」(大韓興學報(11), 1910), 「文學이란 何오」(每日新聞, 1916), 「懸賞小說考選餘言」(青春(12), 1918.3), 崔斗善의 「文學의 意義에 關하여」(學之光(3), 1914), 安廓의 「朝鮮의 文學」(學之光(6), 1915) 등에 의해 近代文學 내지 近代小說의인 文學的意識을 엿볼 수 있다. 李光洙는 「文學의 價値」에서

그러면 文學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 何如한 價値가 有한뇨? 文學의 範圍는 甚히 넓으며 또 其

境界線도甚히朦朧하야到底히一言으로弊之를 슈는無하나大概情의分子를包含할文章이라하면大誤는無하리라.古來로幾多學者의定義가紛紛호되一定호者는無하고詩,歌,小說等도文學의一部分이니此等에는特別히文藝라는名稱이有하니라.

元來文學은다못情의滿足即遊戯로성겨나실디며,또多年間如此히일아와시나漸漸此가進歩發展호에及하야는理性이添加하야吾人의思想과理想을支配호는主權者가되며人生問題解決의擔任者가된지라.

라고말하고文學을오락으로생각하는현상을개탄하고국민의現象과思想을지배하는자가文學이라고文學의効用性을의쳤다(大韓興學報(11), pp.16~18). 또한崔斗善도「文學의意義에關하여」(學之光(3), 1914)에서

文學이文學되는理由가有할지니,일는말하면,文學에는文學의生命이있을지오.더욱그生命은그文學이價値가있으면있을수록그生命이더욱더욱長久할지니그文學을產出한人은有限한壽命을有하나產出된바의文學의그것은4百年이라도그生命을保存할지로다.또吾人이4百年間그文學을鑑賞함은곳그生命을맞봄이니라.……그런데生命이잇다함은그글이情意의經驗을刺戟함이니그글가운데도情意가잇습이라.그럼으로누구든지그글을보면그가운데서情意의刺戟이生하나니그러한새에그글이生命이잇다함이라.만일事實만記錄한것이면비록그글을보드래도知的滿足맞게는업슬터이나이와달음은相異한點이반드시잇슬지라그것은그글가운데情意的要素가有하야나의情意를刺戟한다觀察함이可할지라.

要하건대文學은글가운데에情意를듯는것이니라.이것이勿論完全한定義는아니라그럼으로文學은반드시情意만有하다함이아니오情意가그主要部分이라解釋함이可하리로다.

라고역시情意의文學을강조하고있다.美를추구하는情을기본으로文學을주장하면서그教化性을강조한文學意識은李光洙의「懸賞小說考選餘言」(青春(12) 1918)에集約되어近代小說形成의中軸的인作用을한다.20餘篇을심사하여金明淳의「疑心の少女」등네편을선하고나서

첫째그것이모도다.純粹한時文體로써있습이외다.

둘째는精誠으로쓴것이외다.

……文壇에새로서라는이는宗教의宗教와같은敬虔과嚴肅과誠意가있어야할터인데……우리더욱이러한態도를高調하야저遊戯의文字를弄하는者를痛懲하야야겠습니다.痛懲할뿐더러驅除하야야겠습니다.

셋째는傳襲的,敎訓的인舊套를脫하야藝術的에들어가는氣味가있는것이니이것이실로勃興하는文學의核心이외다.

넷째古代文學은‘理想的’이었던것을이번應募하신이는얼마큼이弊를脫하고‘現實的’에돌아온것이외다.

다섯째깃본것은그속에新思潮의萌芽가보이는것이외다.

라고李光洙는①時文體②精誠③藝術的④現實的⑤新思潮의다섯가지를들고있다.①은文體요②는作家의姿勢③은技法화된內容④는題材⑤는思想을말한것으로이것은近代小說이구비해야할다섯가지要素라고볼수있다.더구나小說의敎訓性을가

장 걸쳐 지닌 作品을 發表하는 李光洙가 자기의 「無情」과 奏瞬星의 「부르짖음」(學之光(12), 1917)과 金明淳의 「疑心の少女」(青春(9), 1917) 3篇만이 敎訓的이라는 舊套를 완전히 脫却한 小說이라고 논평하는데 注目된다.

이와 같은 近代小說 形成期の 作家들의 文學意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진다.

- ① 新小說作家는 勸善懲惡, 愛國 등 敎訓說에 의한 文學意識이 그 주류를 이룬다.
 - ② 李海朝의 虛構性, 安國善의 文學의 共感性과 敎化性에 대한 자각으로 文學意識의 면모를 보여준다.
 - ③ 李光洙와 崔斗善 등이 情意의 文學에 의한 文學意識의 近代的 自覺을 보여준다.
 - ④ 李光洙의 「懸賞小說考選餘言」에서 近代小說의 形成의 文學意識이 정립하게 된다.
- 이러한 文學意識은 金東仁의 反春園論에 의한 文學性的 환원과 廉想涉의 個性文學論에 의해 그 기틀이 확립되어 近代小說 形成의 準칙을 이룬다.

2. 近代小說 形成의 現場

韓國의 近代小說은 李光洙의 출현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李光洙는 玄相允과 같이 主題나 技法과 文體에 있어서 開化期小說에서 탈피한 새로운 시도를 하여 近代小說을 形成케 하고, 뒤의 새로운 近代小說文學을 자리잡게 한다.

그러나 近代小說의 形成은 그 전 小說의 共存意識과 守舊的 경향의 고수로 鼎立現象을 보이면서 서서히 進行된다. 새로운 近代的文學意識에 의한 小說의 대두는 開化期小說의 抵抗과 漢文小說의 守舊的인 復歸意識에 부딪치게 된다. 그것은 小說의 大宗的 장르의 침투에서 오는 開化期小說의 저항이요, 장르의 混動이나 開化期·近代小說의 장르적인 변모에 따르는 漢文小說의 쇠퇴적 양상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小說은 세 가지 樣相으로 나타난다(1906~1919사이 短篇 95篇 중). 그것은 마치 3대가 엮힌 듯한 鼎立의 양상을 보인다.

- ① 漢文小說 : 李沂의 小說 「多情多限」(白岳春史), 「一線香」 「壯元禮」(震庵山人), 「春秋夢」(北嶽山人)
- ② 新小說 : 「貧鮮郎人의 日美人」(李人植), 「共進會」(安國善)
- ③ 近代小說 : 「어린犧牲」(孤舟), 「逼迫」(小星), 「부르짖음」(瞬星), 「少年의 悲哀」(春園) 「疑心の少女」(金明淳)

漢文小說은 開化期小說이 제 장르를 굳히지 않은, 대체로 1910年 이내의 學會誌에 많이 발표되고, 新小說은 아직 短篇의 양식으로 크게 變形하지 못할 뿐 아니라 「青春」의 출현부터는 크게 진작하지 못하고 있다. 李光洙에 의해 「어린犧牲」, 「無情」, 「獻身者」 등이 발표하면서 새로운 양식의 小說이 등장하게 되어, 前小說 장르와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발표된 作品 중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것을 추려 볼 수 있다.

小說	李 沂	大韓自強會月報(1)	1906. 7
多情多恨	白岳春史	太極學報(6)	1907. 1
血의 影	陸 定 洙	獎學月報(2)	1908. 2
壯元禮	震庵山人	畿湖興學會日報(5)	1908. 12
春秋夢	北嶽山人	嶠南教育會雜誌(2)	1909. 5
요조오한	夢 夢	大韓興學報(8)	1909. 12
어린 犠牲	孤 舟	少年(14, 15, 17)	1910. 2~3. 5
無情	孤 舟	大韓興學報(11. 12)	1910. 3~4
獻身者	孤 舟	少年(20)	1910. 8
貧鮮郎의 日美人	李 人 植	每日申報	1912. 3. 1
恨의 一生	小 星	青春(2)	1914. 11
薄明	小 星	青春(3)	1914. 12
再逢春	小 星	青春(4)	1915. 1
金鏡	孤 舟	青春(6)	1915. 3
曠野	小 星	青春(7)	1915. 5
共進會	安 國 善	修久書館	1915. 8
清流壁	小 星	學之光(10)	1916. 9
부르짖음	瞬 星	學之光(12)	1917. 4
종소리	海東樵人	半島時論(2)	1917. 5
少年의 悲哀	春 園	青春(8)	1917. 6
逼迫	小 星	青春(8)	1917. 6
어린 벗에게	의 卍	青春(9)	1917. 7
岐路	李 常 春	青春(9)	1917. 7
疑心の 少女	金 明 淳	青春(9)	1917. 7
마을 집	朱 落 陽	青春(9)	1917. 7
有情無情	金 泳 述	青春(9)	1917. 7
一線香	震庵山人	朝鮮文藝(2)	1917. 10
경희	晶 月	女子界(2)	1818. 3
彷徨	春 園	青春(12)	1918. 3
尹光浩	春 園	青春(13)	1918. 4
母子의 情	柳 鍾 石	青春(14)	1918. 8
回生한 孫女에게	晶 月	女子界(3)	1918. 9
落花	失 明 氏	泰西文藝新報(3)	1918. 10
후회	李 一	泰西文藝新報(7~16)	1918. 11. 16~1919. 2. 17
姉家	柳 鍾 石	創造(1)	1919. 2
神秘의 幕	白 岳	創造(1)	1919. 2
惠善의 死	長 春	創造(1)	1919. 2
약한者의 슬픔	金 東 仁	創造(1)	1919. 2

이 38篇 중에서 漢文小說이 傳記의 叙事인데 비해 開化期小說은 年代記의 小說이요 近代小說은 個性的 現實의이요 時文體로 캐릭터가 창조된 小說樣式을 보여준다.

李光洙는 「어린犧牲」, 「獻身者」 이후 7篇을 발표하고, 玄相允도 「恨의 一生」 이후 5篇, 瞬星은 「부르짖음」, 金明淳은 「疑心の 少女」 등을 발표하면서 近代小說의 形成과정을 보여 준다. 그 중에서 플롯의 짜임새가 있고 表現技法이 뛰어난 「어린 犧牲」은 李光洙의 處女作만이 아니고 近代小說의 효시라고 할 만하다. 또한 玄相允의 「逼迫」은 긴밀한 構造와 박진한 文體, 그리고 人物이 近代小說의 典型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李光洙는 近代小說에서 최초의 長篇일 뿐만 아니라 그의 民族・啓蒙主義의인 의식을 形象한 「無情」을 발표하여 金東仁의 反春園이 대기한 近代小說의 새로운 장을 이룬다.

IV. 近代小說의 類型성과 장르의 樣相

韓國의 近代小說은 漢文小說의 回歸的 欲求와 開化期小說의 저항을 받으면서 새로운 文學意識에 의해 近代小說을 形成한다. 그것은 外的 要因에 적응하면서 發상된 內的 要因인 文學意識과 그 形象化에 의한 값진 수확이다.

그것은 守舊的인 漢文小說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文學意識은 상당히 近代小說의 그것에 접근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作品은 舊態를 벗지 못한 開化期小說에 비해 文學意識과 技法이 調和를 이루어 個性의이고 그 構造가 새로운 近代小說을 형성케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形成에서 완숙을 指向해가는 近代小說이 어떤 敘事構造와 表現技法의 類型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장르적 특이성은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다.

1. 近代小說의 類型성

近代小說은 朝鮮小說이나 開化期小說과 같이 敘事樣式의 變種 장르다. 그것은 敘述의 技法의 차이는 있어도 行動의 모티브에 의한 人間生活의 敘事的表現이라는 데는 同一한 장르적 구범에 든다. 問題는 자기 敘事樣式이면서 자기 어떻게 다른 變種樣式이 되어 있는가에 있으며, 近代小說의 敘事構造나 表現技法 그리고 生活意識이 전소설의 그것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있다.

(1) 敘事構造

近代小說의 敘事構造는 朝鮮小說의 그것을 開化期小說이 극복・변형하는 것 이상의 變革을 보여 준다. 朝鮮小說과 開化期小說의 敘事構造는 크게 보아서 같은 구조에 속하지만, 近代小說의 그것은 면모를 일신한 새로운 형태를 띠우게 된다. 말하자면 幸福→葛藤→苦心→해피엔드의 갈등구조에서 幸福→葛藤→不幸의 구조로 변형되면서 立體的 構造에 의한 個性의인 人間像을 形象化하고 있는 것이 近代小說이다. 朝鮮小說과 開化期小說과의 敘事構造의 변이양상은 이미 추구된 바 있거니와⁽⁷⁾ 여기에선 前代小說의 그것과 比較하며 形成

(7) 이런 추구는 다음과 같은 著書에서 볼 수 있다.

李在統, 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72.

趙東一, 新小說의 文化史的 性格, 韓國文化研究院, 1973.

期の近代小説의 叙事構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

① 前代小説이 傳記的인 양상을 띤 平面的 構成에 의한 年代記的인 小説인데 비해 近代小説은 立體的 構成(解剖的 構成)에 의한 性格이나 行動小説이다. 李光洙의 「無情」(短篇)이나 玄相允의 「清流壁」, 「薄命」 등이 다 立體的 構成으로 形象化되어 있다. 물론 「尹光浩」나 「金鏡」과 같이 平面的 構成의 것도 있으나 近代小説은 立體的 構成의 양상을 띤다.

② 前代小説이 時間順序에 의한 事件의 記錄이며 스토리 중심인데 비하여 近代小説은 必然的인 因果性에 의한 플롯 중심의 小説이다.

③ 前代小説이 幸福→葛藤→苦心→해피엔드의 事件構造인데 비해 近代小説을 幸福→葛藤→不幸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④ 前代小説이 人物의 類型性을 벗어나지 못한데 비해 近代小説은 人物이 個性的이다.

⑤ 前代小説의 視點이 客觀的 全知的 作家視點인데 비해 近代小説은 多분히 主觀的 全知的 作家視點이며, 劇的 構造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⑥ 前代小説이 叙述者의 投影에 의한 계시적 서술 양식인데 비해, 近代小説은 叙述者 투영에 의한 場面 전환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叙事構造는 一代의 記錄的인 前代의 小説과는 달리 近代小説은 人生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것은 近代小説作家들의 作家意識에 의해 彩色된 창조的인 신비라고 할 수 있다.

(2) 變形되는 文體

近代小説의 또 하나의 특성은 口頭語를 간결하고 박진하게 表現하는 個性的인 文體에 있다. 그것은 前代小説의 類型的인 文體에서의 解放을 말함이고, 口頭語의 文學的인 受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그 박진하면서 個人的인 表現의 特異性인 文體의 실례를 들어 보자.

실내의 공기는 참 차다. 마치 죽은 사람의 살 모양으로 심하게도 싸늘하다. 사벽에 걸친 기모노의 소매로서 차디찬 안개를 토하는 듯도 하고, 지금껏 들여다보던 차디찬 회색 구름 덮힌 하늘이 눈가루 모양으로 가루가 되어 유리창틈과 다다미틈과 벽틈으로 훌훌 날아들어와 내 이불속으로 뭉여들어오는 듯하다. 마치 내 살과 피의 모든 세포에 그 차디찬 하늘가루가 몰라붙어서 그 세포들을 열게 하는 듯하다. 나는 이불을 꼭 막 쓰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이드는 사람 모양으로 가만히 있었다. 내 심장의 뚝뚝 뛰는 소리가 이불에 반향하여 역역히 들린다. 나는 한참이나 그 소리를 듣다가 차마 더 듣지 못하여 얼굴을 내어 놓고 눈을 번쩍 떴다.

—「彷徨」에서

얼마나 박진하고 간결한 個性的인 문장인가. 더라, 리라 등의 총결어미도 구두어로 克服되고, 과장적인 單面적 叙述이 아니고 場面描寫的인 주관적 서술양식이다. 그 특징을 몇가지로 例擧해 볼 수 있다.

- ① 연계적인 長文이 간격한 單文의 연속이나 分節된 文章으로 이루어진다.
- ② 非現實的 誇張의인 표현을 克服하여, 現實的이고 사실적인 표현이 주가 된다.
- ③ 더러, 너라의 文語體의 종결어미를 현실적인 이다, 하다로 表現하고 있다.
- ④ 非個人的 類型的인 文章이 個人的인 文章으로 변모되어 있다.

이런 叙述양식인 近代的인 文體의 확립으로 비로소 讀者(大衆)와 呼吸을 같이 할 수 있는 近代小說의 形象化가 가능하게 된다.

(3) 個人意識의 발현

小說과 社會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小說에 社會의 空間的인 反映만이 아니고 小說이 社會 속의 個人生活을 묘사한다는 사실이 小說과 社會의 함수적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사실 小說은 社會라는 空間性만이 아니고, 慣習이라든가 生活樣式 또는 生活意識 등 社會的 動物로서의 人間生活을 形象化한다. 그러기에 오히려 小說이 社會學的인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社會的 現實과 小說의 現實과의 관련성, 小說에 受容된 社會的 樣相이 그 중요 대상이 된다. 그러기에 스퍼먼(D. Sperman)은 그의 「小說과 社會」에서

藝術과 文學의 어떤 사회적 관련의 理論도 두 가정에 의한다. (1) 이 行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자체가 社會的이다. (2) 그들에 대한 人格的의 樣相은 社會의 創造다.

라고 文學에서 그리는, 社會 속의 個人的 行動을 規定짓고 있다(D. Sperman, p. 227).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個人意識이 社會的으로 擴大되는 경우와 社會意識이 個人意識을 포용하는 경우다.

開化期小說은 주로 애국이나 自主獨立과 같은 共同意識을 그 主題意識의 大宗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近代小說은 個人意識이 그 主題意識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李光洙의 短篇 「無情」의 원한에 의한 自殺이 그렇고 「恨의 一生」, 「少年의 悲哀」, 「清流壁」, 「부르짖음」이다 運命이나 배반, 不運 등의 個人意識을 形象化한 作品들이다. 이것은 社會意識이나 民族意識을 포방하고 個人意識을 추구하는 開化期小說과는 다른 性格이다. 전자가 社會에서 個人으로 침투해가는 內向的이라면 후자는 個人에서 社會로 擴張되어가는 外向的인 位相을 띠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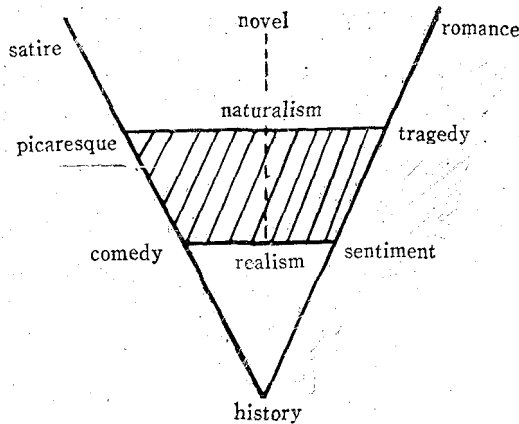
2. 近代小說의 장르의 問題

叙述樣式으로서의 近代小說은 幸福→葛藤→不幸의 갈등 구조를 모티브로 하여 立體的인 構造를 시험해 가면서 박진하고 個人的인 文體로 個人意識을 形象化하고 있다. 이것은 그 構造·叙述 樣式이 近代小說의 그것으로 완성되어가는 樣相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성기의 한국의 近代小說의 장르적인 특색을 정리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R. 쇼올레스는

小説의 基本的인 樣式은 어떠한 小説의 世界와 現實의 世界에 있어서도 아마 세 가지 關係가 그 기본이다. 小説世界가 現實보다 좋은 경우, 못한 경우, 비슷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 小説世界에 로망 諷刺的, 現實的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小説은 諷刺의 세계와 로망의 英雄·歷史의 유사세계를 제공한다.

라고 小説의 世界를 로망(romance), 諷刺 (satire), 歷史(history)의 세 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歷史의 軸을 기점으로 로망의 方向과 諷刺의 方向으로 指向케 한다. 그는 歷史와 로망 사이에 感傷(sentiment), 悲劇(tragedy)으로 다시 나누고, 歷史와 諷刺 사이에 喜劇(comedy)과 파카레스크(picaresque)를 두어 이를 小説(novel)을 中心軸으로 하여 三角構造로 만들어 小説의 장르를 圖式化해 보이고 있다. (M. Scholes, pp. 132~7)



이것을 注意해서 보면, 노블을 頂點으로 歷史에서 가장 가까운 리얼리즘이 喜劇과 感傷이요. 自然主義에 이르는 노블이 悲劇과 파카레스크이며, 로망과 諷刺은 리얼리즘과 自然主義 단계를 逸脫한 小説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 장르론에 따르면 형성기의 近代小説은 歷史에서 로망을 指向하며, 感傷의 경지에서 悲劇의 단계로 形成되어 감을 볼 수 있다. 「恨의 一生」이나 「清流壁」, 「부르짖음」 등은 感傷의 경지요 「어린 犧牲」이나 「少年의 悲哀」 「逼迫」 등은 悲劇의 단계에 속한다.

형성기의 近代小説은 諷刺로 指向하여 喜劇이나 파카레스크의 知的 장르를 形成하지 못하고, 「운수 좋은 날」이나 「太平天下」, 「川邊風景」에 이르러서야 諷刺를 지향하는 小説의 장르가 形成됨을 볼 수 있다.

V. 結

文學은 쉬지 않고 변형하여 새로운 장르를 形成한다. 그것은 作家意識과 技法에 의한 社

會와 歷史의 變化를 수용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近代小說도 前代小說을 克服하고, 새로운 小說 장르를 形成하여 近代文學의 主軸을 이룬다. 그것은 近代意識의 文學意識과 技法에 의한 受容이다. 그것이 어떻게 形成되어 어떤 樣相을 지니고 있는가는 계시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論述한 것을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 수 있다.

① 近代小說 形成期の 韓國小說은 漢文小說, 新小說, 近代小說 등의 세 장르로 나타나 서로 견인작용을 한다.

② 한국의 近代小說은 우리 自體에 의한 自生的 要因과 外國의 影響에 의한 他生的 要因에 의해 形成된다.

③ 自生的 要因은 社會的 變化, 新聞, 雜誌의 發刊과 出版社의 대두, 국어에 대한 自覺, 文學意識의 새로운 認識이며, 他生的 要因은 文學論, 번역소설, 번안소설 등의 影響이다.

④ 近代小說은 李光洙의 「어린 犧牲」에서 비롯하여 李光洙가 7편, 玄相允이 6편, 또 다른 作家들이 作品을 발표하면서 形成되어 간다.

⑤ 形成期の 近代小說은 幸福→葛藤→不幸의 갈등 구조를 모티브로 하여 立體的 叙事構造, 박진하고도 個性的인 文體, 個人意識의 主題化로 그 장르적 特色을 지닌다.

⑥ 형성기의 近代小說은 歷史에서 諷刺로 指向하는 경향은 거의 없고, 로망으로 指向하면서 感傷의 단계에서 悲劇의 단계로 성숙되어 간다.

이러한 한국의 近代小說은 「無情」에 의해 그 기틀을 마련하고 20年代에 가서야 近代小說의 完成을 보게 된다.

參 考 書 籍

白 鐵(1972),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趙演鉉(1968), 韓國現代文學史, 人間社.

鄭漢模(1974),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趙芝薰(1973),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張德順(1977), 韓國文學史, 同和文化社.

林 和(1976), 朝鮮新文學史, 享倫文化社.

李在銑(1979), 韓國現代文學史, 弘盛社.

R. Scholes(1973), *Structualism in Literature*, N.Y.

Dian Sperman(1966), *The Novel and Society*, London.

大韓興學報, 少年, 青春, 學之光, 泰西文藝新報, 創造 등.

* 本 論文은 1978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한 研究論文임.

A Historical Study of Korean Modern Novels

Koo, In Hwan

The work of literature undergo changes continuously in its content and form, and formulate the new genres. This implies that the authorship and literary technique adopt the change into the society and history.

Korean modern novels went beyond previous novels, formulated a new genre, and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cess of forming the aspects of modern novels.

This study treats the following:

1. In the transitional age, Korean novels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Chinese character novel, New novel (新小說), modern novel.
2. Korean modern novels were formed by native elements and foreign influential elements.
3. Native elements we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nges in society, the publication of newspapers and magazines, the establishment of publishing companies, the taking of a sincere view of native language, and the new recognition on the literary consciousness.

Foreign influential elements were affected by the theories of literature introduced from foreign countries, the translated novels, and the adapted stories.

4. Korean modern novel started with Lee, Kwang Soo's (李光洙) "child's sacrifice" (어린 희생), and developed through the publication of Lee's seven short stories, Hyeon, Sang Yoon's (玄相允) six short stories.
5. In the transitional age, Korean modern novels had the structure which was characterized "happiness-struggle-unhappiness", solid narrative structure, and the vraisemblable and ideosyncratic style, and the thematization of individual consciousness.
6.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n modern novels in this age had its tendency to take on the mood of roman. It was fully developed from the sentimental to the tragic phase.

These Korean modern novels formed the basis by Lee, Kwang Soo's "Inhumanity" (無情) and was perfected in the 1920's.